

# 東北亞 原電安全機構 創設을

이 글은 지난 9월21일부터 25일까지 110여개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 36차 정기총회에 참석한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의 수석대표 기조연설문 전문이다.



김진현  
과학기술처 장관

**의장님!**  
본인이 작년에 이어 제36차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먼저 우리 대표단을 대신하여 귀하가 총회 의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드리며, 금번 총회가 의장님의 탁월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핵확산 방지를 위한 성공적이며 건설적인 회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슬로베니아공화

국과 크로아티아공화국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국제원자력기구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프랑스와 中國이 NPT 조약에 가입한 것을 다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향적 움직임들이 NPT에 대한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 국제원자력기구 역할에 대한 믿음을 더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간 사무총장과 사무국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의장님!

본인은 IAEA가 안전조치제도를 보다 강화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금년에 설계정보의 조기 제공, 국제원자력기구 특별사찰권한의 재확인 등 발전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안전조치 대상시설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사찰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맡겨진 임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SAG SI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NPT에 가입한 모든 국가들에 의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이용은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찰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되고 있는 전면보고제도(Universal Reporting System)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동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성, 투명성 및 비차별성이 고려된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장님!

우리 대표단은 사무총장 기조연설을 관심있게 경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본인은 최근 핵무기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로부터 나오는 핵물질 -특히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의 증가에 대하여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의 평화적 이용 또는 저장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관리방안이 진지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본인은 이에 대한 국제

원자력기구의 주도적 역할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본인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관리는 우리 세대가 확고하게 정립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안전을 도모해 주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원자력 활동의 증가로 방사성폐기물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한 저장과 처리는 이제 국제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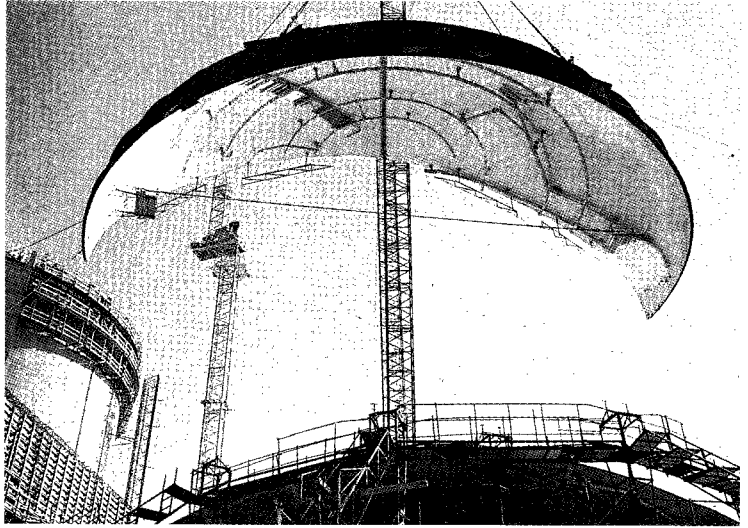
우리 대표단은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저장방안에 대한 국제표준화와 긴밀한 정보교환체제 구축을 진지하게 논의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능동적으로 RADWASS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1단계 사업이 예정대로 1994년까지 완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자력발전사업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일반국민에 대한 이해제고 문제가 보다 중요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PA 활동을 적극 지원, 협력하는 노력과 활동을 강화하여 줄 것을 희망합니다.

의장님!

원자력이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안전성의 확보가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며, 이러한 안전성 확보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당해 국가의 정



부에 있지만 이를 검증하고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력방안도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은 앞에서 일부 동구권국가의 원자로 안전성 문제에 우려를 표명한 발언국들의 견해에 동참하면서 최근 IAEA가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RBMK 원자로의 안전성 향상 평가사업」에 아국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의장님!

아국이 위치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자력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21세기 초까지의 신규 원자력발전사업은 대부분이 동북아시아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동시에 동북아시아는 인구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인접국가들에 대한 방사선 피해는 매우 심각할 것입니다.

또한, 원자력에 대한 국제적 반대운동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중대사고는 앞으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측면에서도 커다란 저해요인이 될 것입니다.

즉, 원전의 중대사고는 한 국가 차원을 넘어 범지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로 안전성 문제와 사고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기구 창설 등 인접국가 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IAEA에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국은 이 자리를 빌어 지역협력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 태지역 지역협력사업인 RCA는 이제 본 궤도에 올라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많은 국가가 원자력의 산업적, 의학적, 농학적 이용분야에서 두드러진 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국은 RCA의 창립회원국 중 하

나로서 그동안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국제기술훈련과정을 개최하여 지역국가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과 경험을 지역 내 다른 국가와 공유키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의장님!

아국은 1978년 최초로 원전을 상업가동한 이래 현재 9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용량 중 원자력점유율면에서 세계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국의 원자력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될 계획입니다. 아국은 작년말에 중수로인 월성 2호기를, 금년 5월에는 가압경수로인 울진 3, 4호기를 착공하였고, 금년말에는 2기의 원전건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 울진 3, 4호기는 지금까지의 한국 원전건설이 외국 선진기술에 의존했던 것과는 달리 국내 자력기술로 설계, 건설되는 최초의 한국형 표준원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국은 2006년까지 모두 18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여 전체 전력수요의 60% 이상을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아국에 있어서 원자력발전은 국가 에너지 자립에 필수적인 선택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원전 건설사업이 활발하지 못한 실정에서 아국의 이같은 원전사업 확대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또한, 아국은 금년에 그동안 축적해 온 원자력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10년 동안 원자력산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원자력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자력 연구개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아국이 확고하게 견지해오고 있던 원자력의 평화이용정책기조는 철저히 이행될 것이며, 국제 공동연구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회원국 그리고 IAEA와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국에서 「차세대 원자로에 대한 IAEA 국제심포지엄」을 93년도에 서울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원자력 이용의 새로운 장을 여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개최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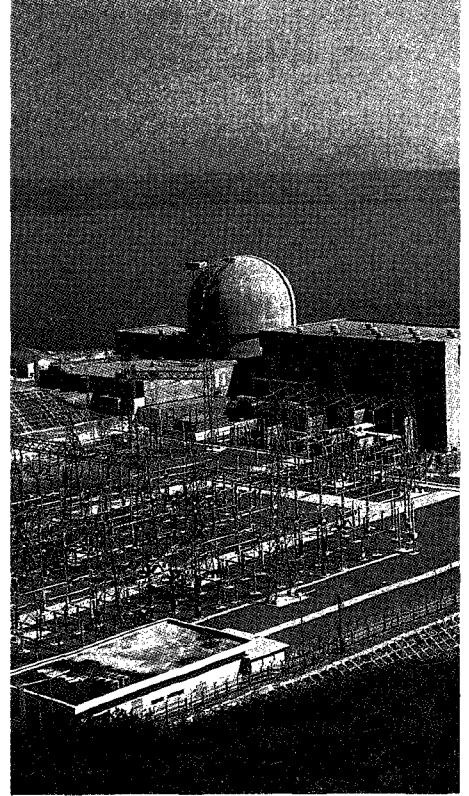
의장님!

우리 대표단은 IAEA가 냉전후의 격변하는 세계정세에 부응하여 이의 존재의의와 방향을 재평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을 다시한 번 강조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조직의 개편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인은 한국과 같은 평화적 원자력활동이 매우 활발한 선발개도국이 IAEA 활동에 보다 기여할 수 있기 위하여 IAEA 조직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문제가 특히 국제원자력기구 헌장 제6조 개정에 관한 의제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의장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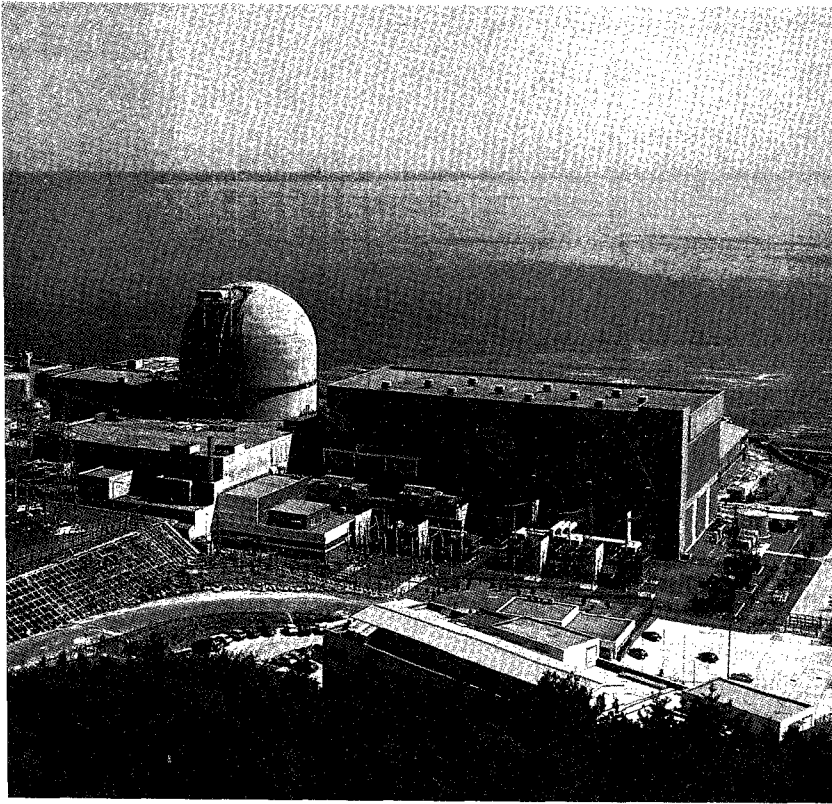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1950년대 말 원자력 이용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래 「원자력 평화이용정책」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핵무기 비확산조약의 당사국으로서 제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왔습니다.

지난 91년 11월8일 노태우 대통령은 원자력을 오로지 평화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우리나라의 의지를 재천명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선포하였습니다. 동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촉진을 향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대한 평화구축의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마침내 금년 2월 한국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원자



력을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을 것과 핵연료 재처리 및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의장님!

지난 4월10일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간 안전조치협정 발효이후 IAEA 사무총장의 방북 및 IAEA 3차례의 임시사찰을 통하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의 원자력시설의 윤곽이 비로소 어느 정도 공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당초 전세계가 우려했던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이 아직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이 원자력이용규모에 비하여 매우 방대하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사무총장에 의하면 건설 및 운영시 완전한 규모의 재처리시설로 간주된다고 하는 공장을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없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안전조치 없이 실제로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정보들은 북한의 원자력프로그램과 그 의도에 대한 의심과 우려를 더하게 하였습니다.

금년 6월 및 9월 이사회 때 아국을 비롯한 여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 및 북한이 안전조치협정을 수

행하는데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북한 당국이 그들의 원자력프로그램에 대한 자발적 해명과 명백성을 제시함으로써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재처리 관련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중단,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전면상호핵사찰제도를 근간으로 남, 북 비핵화협정의 조기 이행으로 보완된 IAEA 안전조치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서만 북한이 그들의 원자력프로그램에 따른 국제사회의 의혹과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우리는 운영 또는 건설중인 북한 원자로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원자로의 공학적 안전설비는 폐쇄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국제안전수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아국은 국제원자력기구 및 이 지역 내 국가들이 북한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단은 금번 총회가 성공적이며, 결실있는 회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